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천교회)

이진우 이필레 강은미 김병율/이영숙 김영애 김종선/박영숙 김지한/유소정 김창길 김춘화 박금엽 박은숙 박종삼 송부현/김영진 송철기/김현숙 오영순 윤병호/양영욱 이기자 이상현 장복순 전병구/이인숙 정은현 조옥자 최정순 황영욱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천교회)

이진우 이필레 강은미 김기택/배숙자 김병율/이영숙 김영애 박금엽 박종삼/이명원 송미선 송부현 안지영 오영순 윤영준/박진숙 이기자 이오순 이향교 전순봉 최성현/윤정자 루디아어전도회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천교회)

이필레 김경엽 김병율/이영숙 김중익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박부웅/최귀남 오기쁨 윤조훈 이미자 이월숙 이효숙 임만순/서영숙 전병구/이인숙 조월형 채영엽 황영욱 무 명 홍성운/김지현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강은미 김경엽 김영숙 김민성 김준구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박준홍 방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욱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미자 이상미 이설아 이소은 이승에 이육남 임승주 전병구 전영선 정영심 정옥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김민혁 무 명 박서광 양일석 이노를 전지선 정승현

☞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7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요한복음 12장 1절 ~ 11절			
월요일	요한복음 12장 12절 ~ 19절	목요일	요한복음 13장 1절 ~ 11절	
화요일	요한복음 12장 20절 ~ 36절	금요일	요한복음 13장 12절 ~ 20절	
수요일	요한복음 12장 37절 ~ 50절	토요일	요한복음 13장 21절 ~ 30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준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김제호		
	전도사	이필레		
찬양대	지위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산나 : 김안나 시온·에덴 : 최원지 엔젤 : 이난수		
	바눅가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공희라 최유경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철 이성욱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윤희회	이집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홍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식코 : 김흥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0. 2. 9. 주일 예배 설교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증거	설교 이진우 목사
마가복음 15장 34-47절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분리되는 것, 분리현상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됨이 육적인 죽음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자기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에도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증언하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언
본문 34절입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다윗이 지은 메시아 고난의 시 즉, 시편 22편 1절인,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돌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구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받는 구약에 예언된 고난임을 전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 37-38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속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전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16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 말씀하셨는데, 죄로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심으로 길이 열리게 되었고, 휘장으로 간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게 되었으며,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하는 신약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도 생명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말세의 정조는 그저 지진과 전쟁과 기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했는데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를 쉽게 여기는 것 또한 말세의 정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2-53절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에 획을 긋는 메시아의 죽음이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2.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의 증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들이 벌어지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감시하고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그리고 이 후에 무덤에 장사지내기까지 총괄하게 했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어린양과 같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요동하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남을 보게 된 그는 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민족,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주도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속의 죽음이었음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셨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관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저마다의 신앙의 체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크고 작은 신앙의 체험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로 삶으로 증거 하는 자들이 되어야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인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아리마대 요셉의 증거

본문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준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돌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당돌하"라는 헬라어는 "뚝딱하다"인데 원형인 "뚝마오"의 능동태, 부사형입니다. 이 뜻은 당대하게 용기를 내다."라는 뜻으로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그 때부터 당대하게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나아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용기를 얻게 했습니까?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으로써 자신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회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숨겨 왔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게 될 때를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배앗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는 이제 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함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인간관계가 원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지 신앙인임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나는 신앙인이요 예수의 제자임을 자랑하며 드러내려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한 이후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용기 내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기가 부족하면 구원엔 구짓지 아니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마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후 더욱 용기 내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 했고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이 준비했던 묘실에 안치했는데, 사실 이 또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습니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기록으로 전파되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SINCE 1975

No. 46 - 07

2020. 02. 16.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삶” [사도행전 12장 24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입문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화: 윤 영 준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앙 ————— 찬송가 171장 ————— 다 갈 이

(Praise) 하나님의 독생자

통 성 기 도 —————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 [1부] 방 원 식 집 사

(Prayer) [3부] 윤 영 준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마가복음 16장 1~8절[신약p.84] 오 영 순 권 사

(Scripture) [2부] 창세기 6장 1~13절[구약p.7]

찬 앙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길 되신 주님[Carl F. Mueller]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1.3부] 사랑과 열정의 증인들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올바른 자기관리 김 제 호 목 사

헌 금 봉 헌 [1.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앙 ————— 찬송가 516(통265)장 ————— 다 갈 이

(Praise) 웅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축 도 —————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앙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화: 윤 영 준 장 로

목 도 ————— 시 온 찬 양 대

성 시 ————— 시편 7편 17절 ————— 사 회 자

간 구 ————— 사 회 자

찬 앙 ————— 찬송가 521(통253)장 ————— 다 갈 이

기 도 —————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 경 봉 독 ————— 시편 98편 1~9절[구약 p.872] — 사 회 자

찬 앙 ————— 시 온 찬 양 대

설 교 ————— 새 노래로 찬양하라 ————— 이 진 우 목 사

광 고 ————— 담 임 목 사

찬 앙 ————— 찬송가 295(통417)장 ————— 다 갈 이

축 도 ————— 큰 죄에 빠진 나를 —————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앙 ————— 시 온 찬 양 대

기 도 ————— [다음주:전순봉권사] ————— 이 명 희 권 사

성 경 봉 독 ————— 히브리서 10장 12~14절[신약p.363] — 인 도 자

설 교 ————— 온전케 하는 복음 —————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금요기도회]

이번 주(21일) 금요기도회는 사랑1초원 주관으로 합니다.

- [2020년 상반기 장학금전달식]
- 다음 주(23일) 찬양예배 시에는 2020년 상반기 장학금전달식이 있습니다.

- [초원천목회]
- 초원장님들은 일정을 정하시어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고, 이필레 전도사에게 예산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확인서]
-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확인서가 필요하신 성도님은 본당입구에 있는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보라여전도회 천목회]
- 2월 20일(목) 오전 11시 제1교육관에서 천목회가 있습니다. 드보라여전도회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개별 마스크착용을 부탁드리며 교회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2~3월 행사안내]
- 2월 23일(주일) 상반기 장학금전달
- 3월 8일(주일)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 29일(주일) 상반기 수세식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남전도회월례회(3부예배후/본당)	*찬양위원회월례회(찬양예배후/성가대실)
*교육위원회모임(찬양예배후/로템나무)	

◎ 환영합니다

- 20~1 정종민 성도(청년) 스스로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공인석 집 사	심하영 청 년	이준복 성도, 이명화 집사/ 김정연 집사, 이선분 권사	유은자 권 사	믿음 부천 믿음 목동일산	바울 남전도회
떡	송미선 성도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장녀결혼감사).					
다음주	김근봉 권 사	주성탁 집 사	전병구 집사, 이인숙 권사/ 이육남 권사	백남실 권 사	소망1 고척1 고척2	요한 남전도회

순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2월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2일)	김형국 집사	박권제 장로	박희영 권사	최성현 장로	채만기 집사	최귀남 권사
2주(9일)	김종진 집사	최성현 장로	이영숙 권사	강영성 장로	최기훈 장로	이연숙 권사
3주(16일)	방원식 집사	윤영준 장로	오영순 권사	윤영준 장로	김경엽 집사	이명희 권사
4주(23일)	채만기 집사	윤조훈 장로	이오순 권사	윤조훈 장로	최상길 집사	전순봉 권사
예배안내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